

# 일본만화의 역사왜곡에 대한 고찰\*

고경일

## 초 록

독일이 의장국으로 있는 유럽연합(EU)에서는 회원국 전체가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유럽의 11개 나라에서 역사왜곡을 범죄로 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아래 교과서문제나 헌법개정, 야스쿠니 참배 등을 주장하며 국가주의적인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역사교과서의 개악을 주도하는 우익들의 논리는 과거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쟁의 피해자로서의 일본을 강조하여 오히려 피해자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특히, 일반대중들의 깊은 관심을 끌어내고 있는 만화분야에서는 고바야시 요시노리와 야마노 사린의 만화작품을 통해 우익들의 논리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만화 일본사회의 역사왜곡의 실태’와 ‘일본우익의 논리와 만화의 상호작용’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일본 만화의 현황에 대해 역사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일본 우경화의 실태와 배경 그리고 왜 국가주의와 보수주의가 고조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일본 우익들의 정신적 뿌리를 이루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와 우익단체의 주도로 집필된 새로운 역사 교과서에 객관적으로 접근하였다. 그리고 역사왜곡의 대표적 작품인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전쟁론』과 야마노 사린의 『협한론』을 집중 검토하여 문제의 실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허위 과장된 문제를 정면으로 제시하여 앞서 언급한 두 작품을 역사의 실증으로 분석함으로써 일부 만화가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역사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대응 논리로 만화가들의 극복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일본 만화, 역사왜곡

## I. 서론

### 1. 연구배경

\* 이 논문은 2008학년 상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에서 제작, 배포한 후쇼샤 판 역사교과서가 일본의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하여 일본 전국의 서점가에 배포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일선학교와 지역주민들이 거의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일단 새역모 교과서는 그다지 힘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새역모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인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는 만화라는 형식을 통해 커다란 대중적 영향력을 획

득했다. 그는 『전쟁론』, 『대만론』, 『야스쿠니론』 등의 이야기 만화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최근에는 한국사회를 비하하는 야마노 사린의 만화 『협한류』 시리즈 역시 수 십 만권의 판매고를 올렸다. 야마노는 2002년 7월말 발간된 『협한류』와 『협한류 2』에 이어 10여 편의 아류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모두 1백만 부 넘게 판매했다.

작품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들은 평화·인권·민주주의의 내용을 부정하고 침략전쟁을 찬양하거나 식민지 지배는 물론,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경의를 표하고 한국의 역사·문화 등을 근거 없이 왜곡하고 비하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고바야시와 야마노의 만화는 심각한 ‘역사왜곡’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검인정 교과서와 달리 ‘창작문예’의 형태를 띠면서 후쇼샤 판 교과서 내용보다 더 왜곡이 심하다. 이들 만화는 ‘만화왕국’인 일본 사회에 광범위한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어 그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으며, 해외 번역 등을 통해 외국인들마저 한국(한국인)에 대해 곡해하고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에 본 논문은 최근 가장 눈에 띄게 일본 우익들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거나 확대·재생산하는 만화 가운데 밀리언셀러의 대열에 오른 만화를 중심으로 ‘역사왜곡’의 특징을 연구하였다. 내용적 측면뿐 아니라, 형태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제작되어 일반인들에게 편견을 심어주고 있는 역사왜곡만화의 실상과 사회적 근거들을 찾아 분석하고, 그 영향력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올바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한다.

## 2. 연구 범위와 방법

이미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역사 왜곡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이러한 역사왜곡 매체들이 용인되고 있는 것은 일본 사회의 우경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사회가 우경화 실태와 사회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을 검토하는 것이 고바야시와 야마노의 작품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국가주의와 보수주의가 고조된 원인 또한 본 연구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우익들의 정신적 뿌리를 이루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와 우익단체의 주도로 집필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역사왜곡만화의 대표적 작품인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전쟁론』과 ‘야마노 사린’의 『협한류』를 집중 검토하여 문제의 실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허위 과장된 문제를 정면으로 제시하여 두 작품을 역사의 실증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일본 만화계의 일부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역사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분석으로 극복할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일본사회와 우경화

## 1. 우경화의 상징과 의미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전쟁론』과 야마노 사린의 『협한론』 등의 소위 우익만화들의 탄생 배경은 일본 사회 전반에 걸친 '우경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앞서 말한 바 있다. 특히, '야스쿠니 신사'는 우익들이 자신들의 논리를 방어하는 매개로 사용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라는 상징을 통하여 전체주의로의 회귀, 전쟁의 합리화, 타민족 배척에 대한 합리화 등을 가능하게 하며, 그러한 역사적 오류를 교과서를 통해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는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에 있는 신사로, 천황을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일본에 있는 신사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영미권의 언론에서는 '전쟁 신사(war shrine)'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양심적인 일본 학자들의 경우 '군국침략 신사'로 부르기도 한다.

일본역사에서 천황의 지위는 계속 유지되었으나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한 기간은 짧았으며 대부분 귀족이나 호족 무사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천황이 일본의 실제적 구심으로 자리 잡은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였다. 그 뒤 건립된 야스쿠니 신사는 천황을 정점으로 한 일본 우익의 구심체로 떠올랐다. 1869년 메이지천황은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고 천황의 군대를 조직하면서 전몰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했으며, 내전으로 사망한 전사자들의 합동초혼제를 거행하기 위해 도쿄쇼콘사(東京

招魂社)를 설립했다. 도쿄쇼콘사(東京招魂社)는 1879년에 현재의 야스쿠니 신사로 개명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여러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야스쿠니 신사의 종교적 의미를 들 수 있다. 메이지정부는 천황제 이데올로기 형성을 위해 황실의 신도식 제사를 국가제사로서 확립한, 이른바 '국가신도(國家神道)'를 확립하였으며, 야스쿠니 신사는 국가신도의 중심 시설이다. 메이지시대 이후 천황·황족을 제외한 일반국민을 국가가 직접 신으로 모신 유일한 신사가 야스쿠니 신사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반 종교와 다른 점은 종교의 자기결정권이 없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모셔지길 원하는지 않든 일본정부와 야스쿠니 신사의 결정에 따라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강제적으로 모셔진다. 이는 곧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나 천자(天子)를 위해 아들이나 남편을 바치는 것을 성스러운 행위라고 믿게 함으로써, 야스쿠니 신앙은 당시 일본인의 삶과 죽음에 최종적인 의미 부여를 했다. 사람들의 최종적인 삶과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을 종교라고 부른다면, 야스쿠니 신앙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종교이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에 의해 강제된 종교이다.

또한 국가신도라는 개념의 내실을 어떻게 규정하든 그것은 천황 즉, 국가를 신도로 하는 종교였기 때문에 비로소 전사한 자도 신으로 받아들여졌다.)

둘째, 지배 권력을 확고히 하는 수단으로서 야스쿠니 신사이다. 1930년대 이후 군국주의 일본이

2) 다카하시 테츠야(高橋哲哉), 『야스쿠니문제』, 역사비평, 2005, p.34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잇달아 일으키면서 야스쿠니 신사는 이들 전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다.

전쟁터로 나가는 젊은이들을 야스쿠니 신사에 보내 출정의식을 통해 각오를 다지게 하고, 돌아온 전사자들의 유해를 야스쿠니 신사에 모시고 추모제를 하는 한편, 전국 각지의 유족들을 초대해 일본의 천황이 직접 추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에 감동하는 국민들의 분위기를 더 한층 지배 권력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셋째, 야스쿠니 신사의 전쟁찬미와 무단합사이다. 야스쿠니 신사 경내의 전쟁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유슈칸(遊就館)'에는 전시관 입구에 미국의 진주만 기습 때 사용한 '제로'형 미쓰비시 전투기가 위용을 과시하며 전시되어 있다. 또한 진주만 공격의 성공을 알린 암호전보와 폭탄 속에 자살특공대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발사됐던 인간어뢰 '가이텐(回天)'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군견(軍犬)위령탑과 가미카제 돌격대원의 동상 등이 서 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수학여행은 물론 일본 우익들이 군복을 착용하고 나타나 전쟁을 찬미하는 교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본전에는 레이보(靈寶簿)라 하여 각종 전쟁에서 숨진 사람 2백46만여 명의 명부가 보관되어 있다. 1945년 11월 20일, 만주사변 이후 대동아전쟁에 이르는 육해군 군인·군속 등을 초혼하기 위해 임시 대 초혼제가 집행되었고, 1946년 이후 37회에 걸쳐서 합사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조선, 대만출신 합사자들이 무단으로 대거 합사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조선출신 합사자가 20,636명, 대만출신 합사자가 27,656명<sup>3)</sup>

이나 된다. 현재 한국·대만·오키나와 일본의 유족과 시민단체들로 강제합사 취하소동과 야스쿠니 국제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A급 전범 14명이 포함된 것은 1978년의 일이다.

## 2. 우경화가 시작된 배경

일본의 우경화는 역사적 아이러니를 동반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사회는 정치적으로 전후 55년 체제의 붕괴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보수화되었다. 55년간 이어진 소위 자민당 일당 체제에 대해 일본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쌓이면서 정치적 부동층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로 인해 자민당 정권이 한때 막을 내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일본사회에서 진보, 좌파세력의 몰락을 가중시켜왔다. 마르크시즘이 퇴조하고 일본의 '평화헌법'에 대한 혐오가 증폭되면서 역사논쟁도 방향을 바꾸었다. 헌법, 전후 교육, 전쟁범죄를 시인하지 않았던 인사들이 일본정치의 주류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또한, 구공산권 세력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국제사회의 질서가 초강대국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회당의 분해로 좌파와 우파라는 양축의 균형이 깨지면서 일본 내의 진보세력이 빠른 속도로 몰락해 갔다. 오늘날 일본정치가 자민당과 자민당에서 갈라져 나온 민주당간의 우파 대결로 대체된 것은 이러한 역사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젊은 층이 호응하는 것은 군국

3) 야스쿠니신사 문제 자료집, 國立國會圖書館 調査立法考査局, 1976

주의의 부활이라기보다는 일본 내 좌파가 설득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며, '과거사'에 더 무지해지는 젊은이들은 역사왜곡에 대해 비판력이 결여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일본 사회의 우경화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일본 경제의 불황이 일반 사람들의 보수화를 가속화시킨 데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으로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공황상태가 한동안 지속되었다. 장기간에 걸친 불황의 연속은 당연히 국민들의 생계 위기와 함께 사회적인 불만을 고조시켰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였으며, 계속되는 취업난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일부 젊은이들을 더욱 괴곤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민주주의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와 회의감은 갈수록 만연되어 지식인층에까지 확산되었고, 급기야 고바야시의 『전쟁론』과 『협한론』이라는 우익만화들의 논리를 쉽게 받아들이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그 후 일본 사회에는 반사회적인 행태를 보이는 히키코모리족(은둔형 외톨이)과 도오리마(通り魔,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을 해치는 사람)와 같은 사회적 일탈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에 대한 의견을 흑과 백의 이분법적 논리로 단순화하려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이는 차별이나 부패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발심을 이용한 우익들의 선동에 쉽게 이용당하는 단초가 되었다.

둘째, 미국의 석유쟁탈 전쟁인 '걸프전'과 이에

따른 국제 정세의 변화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초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해체와 1991년에 발생한 걸프전은 국제사회에 공헌한다는 미명 아래, 일본의 패전 후 최초 해외 파병을 정당화시켰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디딤돌이 되었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휘 아래 걸프전에 참전한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공헌한다는 이미지를 세계 각국에 심어주면서 재무장의 논리를 확산시켰다. 특히 2003년 3월 20일 부시대통령의 전격적인 이라크전쟁 개시로 인해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국제사회 공헌이라는 미명 아래 지속적인 자위대 파병의 압력을 받게 된다. 물론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빌미로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병에 명분을 가질 수 있었기에 적극 수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하여 정당하게 '군사 대국화'의 길을 열게 된다.

셋째,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핵실험을 계기로 일본사회에 불안감이 팽배해지자 이를 악용해 일본 우익들은 군비확장에 대한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본 헌법에서 '국가권력이 발동하는 전쟁,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것을 포기한다.'(일본 헌법 9조 1항)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 봉사한다는 미명 아래 이미 자위대의 해외 파병과 미일안보조약을 기반으로 한 군사력 강화를 통해 헌법9조를 이미 무력화하는 순서를 밟고 있고, 나아가 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일본이 북한의 핵 실험과 납북자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일본이 북한의 전쟁 도발 위협에 내몰려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 스스로 무장해야 한다는 논리를 뒷

4) [www.financialtimes.uk](http://www.financialtimes.uk) (영국파이낸셜 타임스)2005.05.28.

받침해주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헌법이 자국의 뜻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는 군대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 지역방위에 대한 명분 제시와 자위대 해의 파병을 위해서라며 헌법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3. 우경화의 대표적 사례 - 역사왜곡 교과서

이러한 일본 사회의 우경화 흐름을 타고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다. 2001년 일본역사 교과서와 관련해 주요한 지표로 기록될 만한 사건, 그것은 다름 아닌 새역모에서 만든 중학교 역사 교과서이다. 새역모의 교과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위험한 사관을 가르치고 있다.

첫째, 객관성에 근거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사실이다. 새역모는 일본의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있는 현행 교과서 내용을 비판하면서 대신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자며 일부 우익들이 발호하여 만든 단체로, 모임의 주축은 도쿄대학 경제학과 교수 후지오카 노부카츠, 전기통신대학 교수 니시오 칸지, 유명 수필가 야마모토 나츠히토 등으로 역사 전공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새역모는 일본인의 '자학사관'을 벗어버리고 '자유주의 사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논리를 집중적으로 유포하여 한국과 중국 등 관련 당사국들의 반발을 샀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은 일본사회 전반이 우경화하는 데에 있어 단지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은 역사적 사실인 '중군위안부'에 대해 정부

가 강제연행에 관여했다는 '물증'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증언만으로는 역사적 사실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군위안부에 대한 기술이 '아동교육상' 좋지 않다고 하여 역사왜곡을 당연시하고 있다. 과거 후소샤 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다른 출판사들의 교과서가 새역모의 교과서 못지않게 왜곡 부분이 많아진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채택률 60.1%를 보이는 도쿄서적의 경우,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임을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다. 검정 신청 시 독도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던 오사카 서적의 교과서 역시 독도영유권을 강변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11%라는 높은 채택률을 보였다. 2005년도 검정에서는 후소샤 판의 교과서에도 독도에 대한 부분을 더 강도를 높여 의욕적으로 교과서 채택운동을 전개했으나, 실제 채택률 1% 미만의 결과를 낳았다.

둘째,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 일부 소수 학자들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일본정부와 우익들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의 연장선상에서 파생한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새역모의 교과서는 2001년 8월 일선학교의 채택 결과, 참패했다. 애초 목표는 10%의 채택률이었지만 실제로는 0.039%에 그치고 만 것이다. 하지만 2004년 8월, 또 한 명의 일본 우익 인사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의 지원으로 새로 신설되는 중학교에 새역모의 역사교과서가 보급되었다. 새역모의 역사교과서는 검정 공개 직후 일본 내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민감한 문제가 되었지만, 일본 정부는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민간 차원의 일'이라거나 '정부 입장은 아니다'라며 논란을 비켜갔다. 하지만 검정 통과는 '일본 정부의 용인'이 없으면 어렵다는 게 전

문가들의 의견이었다. 당시 문부상은 "집필자가 정부 견해에 따라 기술했다"고 밝혔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는 "각국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양국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개입을 부인했으나 며칠 만에 정부의 개입이 폭로되고 말았다. 앞으로도 일본 정부의 비호 아래 새역모의 움직임이 교과서를 만드는 여러 출판사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III. 역사만화 속의 역사왜곡

#### 1. 만화 속에 담긴 역사적의식의 의미

서문에 언급했듯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는 새역모의 영향력 있는 멤버 중 하나다. 이미 『전쟁론』, 『대만론』, 『야스쿠니론』 등의 이야기 만화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대중적인 영향력을 획득했다. 고바야시나 야마노의 만화는 후쇼샤 판 교과서 속의 왜곡된 역사적의식을 기반으로 작업되었으나 그보다 더 왜곡이 심하다.

일본사회 안에서의 만화라는 장르의 입지는 절대적이다. 일본 만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테즈카 오사무의 경우 고바야시 요시노리나 야마노 샤린과 정반대의 입장에서 정치적 주제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강하게 담고 있다. 그의 만화는 전후 민주주의에 영향을 받은 인류애나 평화주의 이상주의를 테마로 하여 대중들에게 민주주의의 중요성,

평화와 공존의 의미에 대한 의식을 정착시키고자 했다. '철완아톰'이 인기를 누린 것도 그러한 전후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그의 만년 작품 『아돌프에게 고하다』도 히틀러 유대인설을 모티브로 역사의 격동에 휘말려가는 인간의 운명을 표현하여 작품 자체에서는 그 기대와 신뢰가 흔들렸다 해도, 평화주의와 이상주의에 대한 작가의 기본적인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sup>5)</sup>

하지만 전후 일본인에게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스토리 만화라는 형식을 이용해 이제는 정반대의 주장과 테마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런 작가의 수요는 소수이고 나머지 대부분 작가들은 이러한 정치적인 이야기 또는 공작과 상관없이 자신의 작품세계를 펼쳐나가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들을 왜곡하는 만화가 테즈카 오사무만큼 광범위하게 여러 층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우려가 될 만한 사건이다.

고바야시 요시노리 이전에도 작품 안에 정치적 테마나 자신의 역사관을 강하게 담은 작가들은 있었다. 예를 들면 전전(戰前)의 『노라쿠로』나 『모험 단키치』 같은 만화는 일본의 군국주의와 전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이러한 환경이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일조했다. 하지만 이들 작품은 전쟁준비의 상황 그리고 전쟁 상황이라는 특수한 시간과 공간 내에서 제작되어진 작품이다. 하지만 고바야시 요시노리와 야마노 샤린의 경우는 전후(戰後) 일본의 정치형세에 기생해 우익들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옮기

5) 요시히로 코스케, 『일본만화현대사』, 우용출판사, 1998, p.85

는 강한 테마를 담고 있다.

우경화 시각을 담은 만화 속 사관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르포만화'라는 형식을 띄고 있으나, 실은 역사적 근거가 없는 '창작 문예'이다. 일본에서 장기간 베스트셀러로 주목받는 역사왜곡의 작품들의 경우 만화의 이야기 구성 방식이나 문체 등을 고려해 보면 교양만화, 그 중에서도 취재를 통해 사실 여부를 증명하고 출처를 공개하여 현상의 본질을 규명하는 '르포만화'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만화는 르포만화(혹은 다큐멘터리 만화)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만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출처 및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만화계의 출판 관례상 르포만화의 경우 픽션이 아니기 때문에, 취재 절차와 방법 및 자료 출처 등을 정확하게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자기주장을 위한 자의적 역사 해석이나 사실 왜곡을 통해 최소한의 객관성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르포만화에서 중요한 것은 작가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주관'이다. 작가의 주관에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일반적인 상식과 근거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편향된 주관과 역사인식을 주입하기 위하여 '르포'라는 장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위험하다.

## 2.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전쟁론』

고바야시 요시노리는 『전쟁론』을 새역모의 선

전용으로 수단화하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동아전쟁을 찬양하고 미화하고 있다. 외교의 연장이라거나 쌍방의 의견소통이 안 될 경우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쟁은 용인된 폭력으로 본격적인 약탈과 강간, 학살 모든 폭력이 승인되는 상태나 평화 시의 질서를 무질서로 바꾸는 상태가 '자연스런 전쟁'일지도 모른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전쟁론』, pp.114~115).



그림 1. 폭력에 대해 용인하면서 질서를 무질서로 바꾸는 미쳐버린 상태가 자연스러운 전쟁이라고 표현

고바야시는 대동아 전쟁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일본의 침략 전쟁이 아닌 아시아를 식민지화했던 구미인(백인 중심의 서양인)들과 싸운 성전이라고 강조한다. 게다가 서양인들의 아시아인에 대한 시각을 차별과 멸시로 규정하고, 구미제국주의 열강에 대해 싸운 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밖에 없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본의 책무였다고 근거 없는 주장을 당당히 펼친다. 고바야시 요시노리는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을 아시아와 구미열강의 대결로 몰아, 어



떨 수 없이 아시아를 위해서 전쟁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전쟁론』, p.36).



그림 2. 인권, 자유, 개인, 반전평화 등을 외치는 사람들을 잔존 좌익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압축

고바야시 요시노리는 위의 내용을 미화하기 위해 전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조국과 역사와 가족을 위해서는 자기희생이 필요했다거나 전쟁론의 많은 부분을 애뜻한 이야기를 꾸며내 독자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전쟁론』, p.280).

특히, 전쟁에 참여한 개인의 체험을 극대화해 전쟁을 찬미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고바야시에게는 전쟁은 필연이고 선택상황이다. 그리고 선택된 상황 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전쟁을 미화하고 있다.

둘째, 전후 일본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고바야시 요시노리는 패전 후 일본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미국이 심어놓은 사상이라거나 민주주의는

곧 좌익이라고 우기며 일본의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전후 민주주의가 일본의 평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이런 평화가 일본의 사회문제를 재생산해 냈고, 이로 인하여 일본의 개인주의를 심화시키고 무기력한 일본 사회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그래서 패전 후 민주주의의 주요 요소인 평화·인권·페미니즘 등에 대해서 좌익이라고 규정하고, 전후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좌익으로 편향되어 이끌려 왔다고 한다(『전쟁론』, p.24).

셋째, 반전 평화는 일본을 파국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패전 후 민주주의가 가져다 준 평화에 대해서 고바야시는 공(公)을 해치는, 그래서 반전 평화는 일본을 파국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전쟁론』, p.21). 그는 전체주의와 같은 억압된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규정한다. 평화는 질서가 있는 상태이며 그 질서는 국내로는 경찰, 국외로는 군대 이 두면의 폭력조치가 국내질서를 만든다는 표현하고 있다. 그것이 평화라고 강조한다(『전쟁론』, p.373).



그림 3. 경찰과 군대라는 양면의 폭력정치가 공산주의와 같은 외부 난입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

『전쟁론』은 전쟁을 미화한 한편, 패전 후 일본에 피어난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고 전쟁 반대와 평화주의를 좌 편향된 사상으로 매도하고 있다. 고바야시는 이 만화를 통해 아무런 근거나 자료제시도 하지 않은 채, 다만 우익들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 2. 모순된 작가관에 따른 『협한류』

모순된 작가관은 역사뿐만 아니라 타겟으로 삼은 국가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손상을 입힌다. 야마노 사틴의 『협한류』 시리즈가 대표적인 예이다. 『협한류1』은 이미 45만부가, 『협한류 2』도 30만부 이상이 팔려나갔으며 이후에 출간된 『한국 속의 일본』 등의 협한류 시리즈도 포함하면 전체 판매량은 100만부에 이르고 있다. 특히 『협한류 2』의 경우는 주석에서 “작품 묘사에는 특징을 과장한 표현이 일부 포함돼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같은 묘사법은 만화의 중요한 표현 수단이라는 점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전제하고 근거 없는 논리들을 늘어놓고 있다.

『협한류』는 최근까지 일본에서 불고 있는 한류(韓流)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용어로, 한국을 혐오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단어이다. 『협한류』를 읽고 있으면 과거사를 왜곡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해악을 끼치는 것은 최근 일어났던 생생한 현실까지도 만화라는 매체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협한류』의 한국인 캐릭터

첫째, 한국문화에 대한 협한류이다. ‘한국은 일본문화를 훔쳤다’, ‘대한민국은 검도·유도 등 일본의 문화를 모방하여 자신이 종주국이라 우기고 있다’거나 ‘찾아보았지만 조선도(朝鮮刀)라는 것은 없었다’며 분개하고 있다(『협한류』, pp.101~196). 또 ‘한글 전용은 한국인들의 지나친 한글 우월주의 때문에 채택되었을 뿐, 실제로는 국한 혼용보다 불편한 것이다’, ‘합병 후 일본은 학교교육을 통해 조선어를 필수과목으로서 한글 보급을 했다’라며 한글에 대해서까지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있다(『협한류』, pp.160-169).



그림 5. 일제에 의해 한글은 필수 과목이 되었다고 주장

둘째, 제일동포에 대한 협한류이다. ‘재일조선인

은 정치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았으며, 그들이 일본에 참정권을 갖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일본 내 재일동포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자민족 중심주의적인 시각으로 재단하고 있다. 또한 재일 동포들의 일본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는 '이미 문을 열만큼 열었는데, 그래도 불만이냐고 따진다. 한술 더 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시설의 세금감면 조치에 더 이상 특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한다(『협한류』, pp.179~195).

2006년 6월말 발행된 '협한류 진실, 재일특권'에서는 재일동포들을 왜곡해 특권계층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도쿄 신오쿠보 주변의 신흥 코리아타운으로 자리 잡은 쇼쿠안도리(職安通)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반응한다. 또한 재일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학계에서 일본 사회의 민족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비판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을 강조해온 강상중 도쿄대학 교수에 대해서는 "한국, 중국의 민족주의에는 눈을 감은 채 진보주의자의 기분만 앞서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림 6. 재일 한국인과 조선인은 본국의 잠정적 참정권이 있으니까 일본에서의 참정권은 포기하라고 표현

그 외에도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들이 일본 방송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베끼거나 모방하는 것에 대해 혐오와 냉소를 보내고 있다. 물론 이런 대목들은 우리 스스로 혹독하게 자정해야 할 움직임들이다. 하지만 『협한류』의 이러한 근거 없이 쏟아내는 작가의 주관적인 내용들은 한계가 있다. 상식 있고 예의바른 모범적인 일본인에게 억지주장을 펴다가 결국에는 늘 순응하고 마는 '한국인의 전형'으로 그려진 재일교포 4세 '마츠모토'에 관한 묘사는 『협한류』가 단순한 만화가 아니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악의적 선전물'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한일 공동 개최된 월드컵을 이용한 협한류도 있다. 『협한류』에는 월드컵 4강전 독일 전 당시에 독일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영정사진을 만들어 응원하던 한국인의 이미지가 실려 있다. 야마노는 이 사진들을 영국 방송 BBC가 분석했고 FIFA도 일부분 인정했다는 한국 경기 관련 오심 목록과 함께, '협한'의 근거로 사용했다. 또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한일 월드컵 4강 진출에는 심판의 오심이 결정적이었다.'라고 표현한다(『협한류』, pp.17~23).



그림 7. FIFA의 공식자료에는 월드컵 10대 오판 중 4건이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 경기 중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

## IV. 종합논의

### 1. 역사왜곡에 대한 국제 평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역사 왜곡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11개국은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일본의 우익의 역사 왜곡’이나 ‘역사교과서 왜곡과 그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보도와 연구,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에 근거한 문제제기나 법적 소송에 대한 움직임은 많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역사왜곡 만화가 대중적 영향력을 획득하면서 주변국가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에른스트 춘델의 경우 자신의 저서와 인터넷 블로그에서 홀로코스트 역사를 부인하는 등, 극우적인 선전활동을 하다가 나치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죄목으로 법정 최고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08년부터는 유럽연합(EU)의 장국을 맡고 있는 독일을 중심으로 EU 회원국 전체가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앞서 언급하였다. 이렇게 유럽에서는 역사를 올바르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유럽 각국이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다. 일본의 역사

왜곡 또한 이러한 세계사의 흐름에 맞추어 교정되어야 한다.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논리적 분석이 절실하다.

<표 1> 유럽연합의 전범 판결 예

이름	혐의내용	판결내용	판결년도
에른스트 춘델 (캐나다)	홀로코스트 부인, 나치 찬양, 히틀러 숭배 사상을 퍼트려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및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14개 혐의	징역5년형 선고 (독일 헌법재판소)	2007. 2.15
프레드릭 티벤 (호주 역사가)	나치 독일의 유대인대량학살(홀로코스트)을 부인하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킨 혐의, 유대인 모독 혐의	외국인이라 해도 독일의 평화를 위협하고 독일 내에서 반항을 불러일으킨다면 처벌가능. 이에 따라 기소. (독일 헌법재판소)	2000. 12.13
데이비드 어빙 (영국 역사학자)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를 부인한 혐의	3년 징역형 선고 (오스트리아 법원)	2006.2. 20

### 2. 모순된 발신내용에 따른 수신대상의 상처

영향력이 큰 매체 속에 담긴 모순된 발신 내용은 그릇된 역사관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소재가 된 개체를 포함, 그것을 접하는 대중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

첫째, 일본의 역사를 미화시키기 위해 한국사를

편향하였다. 철저하게 일본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과 관련된 다른 나라의 역사는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고바야시는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일본사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비교 대상으로서 한국사를 거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사를 언급할 때 조공·종속·복속국·속국·종주권 등의 용어를 반복 사용하고 있다.

둘째, 일본군의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거나 태평양전쟁 당시의 반인륜적 잔혹행위의 실체를 은폐하였으며 태평양전쟁 시 일본군이 조선에서 군대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군대위안부 강제동원은 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저지른 반인륜적 전쟁 범죄행위임에도 돈이 필요해서 자발로 왔다거나 군이 아닌 업자와 계약해서 자발적으로 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태평양전쟁 시 일본군의 비인도적 가혹 행위와 집단살해 등 주요 부분을 은폐하여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면서 은폐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셋째, 일본의 침략과정에서 일어난 다른 나라의 피해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일본이 일으킨 러일전쟁이나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전쟁 등 침략 전쟁을 수행하면서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이나 식민지 지배과정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입힌 피해 상황을 서술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기술하고 있다. 또 이런 침략에 대해 서구열강으로부터 아시아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도 식민지배 자체에 대한 반성 대신 미개한 국가에게 수혜를 베풀 듯이 묘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에서 철도와 관개 시설 등 식민지 수탈 시설을 마련한 것이 마치 조

선을 개발하기 위한 것처럼 서술한 것 등이 그러하다.

넷째, 인종주의적이고 자민족 중심주의적인 시각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서구 열강의 아시아 침략을 성토했면서도,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하며 일으킨 대동아전쟁에 대해서는 아시아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조선침략을 위하여 일으킨 러일전쟁 대해서도 마치 일본이 황인종을 대표하여 백인종과 싸운 것처럼 서술하였다. 한편, 험한론 시리즈에서는 재일조선인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며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길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을 통하여 『험한류』는 자민족 중심적이고 다른 나라 민족에 대해 편견과 차별 의식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다섯째, 객관성의 미흡하다. 작품의 형식상 르포만화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만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출처 근거를 제시하거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만화계의 출판 관례상 르포만화의 경우 픽션이 아니기 때문에 취재 절차와 방법 및 자료 출처 등을 정확하게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주장을 위한 자의적 역사해석이나 사실 왜곡으로 인해 최소한의 객관성마저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V. 결론

본 논문을 통해 우익사관에 의한 역사왜곡이 일본만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고 만화라는 친숙한

매체에 의해 일본인이 갖게 되는 위험한 사고를 분석하였으며, 그들의 왜곡이 사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교과서에서부터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역사왜곡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들끓고 있고 과거에 우리와 같은 피해를 본 인접국가들 역시 일본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에 대해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넘비처럼 한때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역사왜곡교과서가 문제가 될 때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문화 개방시기의 연기, 전국의 각 지자체와 시민단체, 각 급 학교의 일본과의 문화교류 중단, 자매결연 학교와의 교류중단, 일본제품 화형식 등 일본에 대한 규탄의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 대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다.

되풀이되는 논리만 펼 것이 아니라 학계가 나서서 철저한 교과서 내용분석을 토대로 학문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일본우익 인사들의 폐부를 꿰뚫는 압도적인 논리와 분석을 통해 역사왜곡에 대응해야 할 것이며, 왜곡된 역사관이 반영된 2차 창작물에 대한 꾸준한 분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다카하시 테츠야 (高橋哲哉), 『야스쿠니 문제』,

역사비평, 2005.

야스쿠니신사 문제 자료집, 國立國會圖書館 調査立法考査局, 1976.

[www.financialtimes.uk](http://www.financialtimes.uk)(영국파이낸셜타임스)2005.05.28.

요시히로 코스케, 『일본만화현대사』, 우용출판사, 1998.

박훈, 『일본 우익의 어제와 오늘(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09)』, 2008.

김탁환, 『독도평전』, 휴머니스트, 2001.

고야스 노부쿠니 (子安宣邦), 『야스쿠니의 일본 일본의 야스쿠니』, 산해출판사, 2005.

노 다니엘, 『우경화하는 신의 나라』, 랜덤하우스 코리아, 2006.

## ABSTRACT

# Consideration on a Historical Distortion of Japanese Cartoon : Focusing on works of the Rightists cartoonist Kobayashi Yoshinori and Yamano Syarin

Ko, Gyoung-il

Continuous provocation of Japanese government to a Dokdo issue and Agreement on Fisheri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evokes a rage and resistance to whole nation in South Korea. In view of mass culture, Japanese Rightists cartoonists, Kobayashi Yoshinori and Yamano Syarin show distorted history in their works. Therefore the consideration of the birth of the Japanese right-wing cartoon is needed in historical, social and cultural viewpoints.

First, the actual condition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Japanese Rightist will be showed. Second, a new Japanese history textbook which was written by right-wing organizations and Yasukuni-jinja will be discussed objectively. Finally, the representative of Japanese right-wing cartoons, <War Theory> and <Kenkanryu> by Kobayashi Yoshinori and Yamano Syarin about historical distortion will be analyzed carefully.

In this dissertation, through the factual analysis of cartoons, in opposition to a prejudice and distortion about Korean history of Japanese Rightist, cartoonists' precise and academic posture is proposed.

Key Word : Japanese Cartoon, Historical Distortion

고경일  
상명대학교 만화·디지털콘텐츠학부 교수  
(330-72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98-20  
Tel : 041-550-5255  
ko777@smu.ac.kr